



2022-2차 해외건설 정책자문위원회 결과보고

업무보고

2022.12.13

□ 개요

- 일시: '22.12.09(금) 10:00~13:00
- 장소: 해외건설협회 대회의실(부영빌딩 13층)
- 참석자(13명, 불임 참조)
 -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 및 정책담당 사무관 등
 - 해외건설협회 부회장, 정책지원센터장
 - 정책자문위원 9명
- 안건 : 해외건설 경쟁력 진단 및 지속 가능한 진출체계와 방향
 - 최근 해외건설 외부환경 변화 및 우리 기업 위치
 - 해외건설 수주 제고를 위한 지원 방향 및 각 사별 전략 등

□ 세부일정

시 간	내 용	비 고
10:00	식순 안내	센터장
10:02	인사 말씀	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
10:07	인사 말씀	부회장
10:10	선진기업 동향 및 외부환경 대응	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현승 교수
10:30	경쟁력 진단 및 진출전략 방향	건설산업연구원 손태홍 연구위원
10:50	심층 토론	전체위원
11:40	마무리	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
12:00	오찬	강서면옥

□ 주요 내용

○ 해외건설협회 부회장

- 올해 코로나가 거의 종식될 것으로 보아 코로나 19 이후 해외건설시장 변화에 따른 선진기업 동향 및 우리 기업 진단을 통한 진출전략을 제시하고자 심층연구를 진행하였음
- 해당 심층연구에 참여하신 연구진이 연구의 주요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발표하실 예정임
- 발표를 듣고 정부 차원의 해외건설 수주지원 방향, 민간 부문 수요 등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향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면 함

○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장

- 코로나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해외건설 수주 제고를 위한 기탄없는 의견 개진바람
- 이번 자리에서는 부회장님이 언급하셨듯이 연초에 센터 차원에서 연구주제를 정하여 서울과기대 및 건산연과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음
- 연구주제 관련 발표 및 논의를 통해 해외건설 경쟁력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진출체계를 도출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함

○ 발표

- 서울과기대 장현승 교수: 선진기업 동향 및 외부환경 대응방안
 - * 선진 건설기업 동향, 해외건설 연관산업 변화 동향,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해외건설 영향 등
- 건산연 손태홍 연구위원: 해외건설 시장환경 및 경쟁력 진단과 진출전략
 - * 불확실한 외부환경 및 전망, 한국 해외건설 경쟁력 진단, 해외건설 진출전략 등

○ 현대건설 차문호 자문역

- 일본이 빠진 해외건설시장에서 한국기업이 참여하여 한국 해외건설 수주가 증가했으나 현재는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수주액이 크지 않음
- 인력의 해외근무 기피현상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적 현상으로, 이를 해결하려면 지분 참여 등 M&A를 통한 현지화 진행이 필요함
- 상위 건설사가 대부분의 해외건설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임
- 해외의 경우 몇 개의 업체가 해외건설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를 과당경쟁의 사례로 보기도 함
- 네옴 관련해서는 사우디라는 나라가 보수적인 나라이고 동시에 인프라·건축 관련한 현지 업체의 경쟁력이 많이 제고되었기 때문에 도급 공사일 경우는 한국업체의 실적을 올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함

○ 다인맨파워 이상기 대표(前GS건설 인프라 부문 대표)

- 한국의 생활 여건이 많이 개선되어 단순 외화벌이 등 밀어내기식으로 인력의 해외 파견을 보내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임. 해외건설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다른 동기부여 방법이 필요함
- GICC 등을 통해 해외건설 지원 트렌드를 보면 우리 문화(K-Culture)와 건설을 엮어서 수출하려고 하는데, 그보다는 이슬람 문화 특성을 고려한 관광인프라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
- 해외건설에 중요한 부분은 금융지원을 통한 업체의 금융경쟁력 제고로 PPP 등 사업을 위해선 정부 측 금융지원이 필요함
- GS건설이 집중하는 호주 사례를 보면, △AP(Availability Payment) 방식, △민·관 소통을 위한 주기적 간담회, △입찰서-제안서 과정 진행 시 주기적 서면 질의응답 등으로 민간의 리스크를 경감해주는 특징이 있는 반면, 단점으로는 노조, 물가, 높은 입찰비용 등이 있음
- 건의사항으로는 F/S 사업 입찰 평가 시 기술요소 반영 비율은 증가시키고 가격요소 비중은 감소시켜 업체에게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 산출물의 질을 상승시켜야 함
- 또한, EDCF 사업 당 자금한도를 늘려 대형복합금융사업 등의 발주 확대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함

○ 한미글로벌 김재현 이사

- 국내 주택시장이 하방압력을 받음에 따른 국내탈피용의 해외 진출은 자제해야 함
- 한미글로벌은 기본적으로 글로벌화를 위해 1. 현지 지사·법인 설립, 2. 현지 업체 M&A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방법으로 해외 진출하며, M&A 시 현지 회사 경영에 대한 간섭이 있어서는 안됨
- 해외 근무 기피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, 벡텔 등 세계적인 업체도 마찬가지임. M&A를 통한 현지화로 인력충원 문제해결이 가능함
- 따라서, 정부차원에서 선진국 중심, 기술이전·협업 목적의 M&A를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- 사우디 현지에서 네옴 관련 인력은 현재 18,000명(최초 1,000명) 수준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상승 분위기가 감지되나 철저하게 사업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
- 네옴 사업 중 신달란 섬 개발사업(12.5 공개)의 경우처럼 다른 사업들이 물밑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네옴 관련 사업 발주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
- 또한, 사우디는 다른 국가와 대비하여 가격에 대해 비교적 민감하지 않아 공기 준수만 잘한다는 전제하에 가격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

○ 수성엔지니어링 정운수 부사장

- 설계시장 역시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으며, 특히 스페인, 터키, 인도의 회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아국사의 가격경쟁력 제고가 필요함
- 경쟁력 제고를 위해 2-3년 전부터 몽골, 미얀마 등의 국가에서 현지화를 진행하고 있음
- 아시아 시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필리핀(ADB 재원사업), 방글라데시(PPP 사업), 네팔(ADB 재원사업) 등의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수주 활동을 진행 중임
- 건의사항으로는 수은 EDCF F/S 사업 입찰가 하한선을 60%에서 80%로 상향조정*을 원함

* 기술력이 강한 업체가 가격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가격이 낮아 Data 품질 저하, 설계 미비 등 산출물의 품질이 좋지 않아 발주처로부터 안 좋은 평을 듣는 경우가 있음

○ 충북대 박형근 교수

- 학령인구가 10만명 이상 감소함에 따라 해외건설 인력 수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. 그에 따라, 해외건설 특성을 고려한 경험 중심 교육* 체계 구축 및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건설 홍보가 필요함

* 서면, 온·오프라인 등 집체교육이 아닌 해외 현장에 직접 가서 실무를 하는 경험 중심 교육을 뜻함

- 글로벌 M&A(동종업계)를 지원하여 수주관점에서의 지원이 아니라 이익관점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보임
- 현지업체 M&A를 통해서 해외건설 인력의 현지 교육이 가능하고, 현지 입찰 시 J/V를 구성할 수 있는 등 수주 경쟁력 제고가 가능함
- 따라서, 건의사항으로는 교육(현지 교육), 재무(수익성 제고), 기술적 이점(선진 기술이전)을 모두 가져올 수 있는 M&A 지원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이 필요함

○ 한국교통연구원 이훈기 센터장

- 현지 수요를 고려한 탑다운(Top-down) 방식의 기획과제형 ODA 사업 추진 활성화, ODA 자금 SPC 지원 등 국토교통 ODA 자금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음. 이를 통해 ODA와 PPP를 연계한 후속 사업 도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
- 일종의 국토교통 ODA 플랫폼을 신설하여 분야별 DB 구축·관리*를 진행하고, 민간이 해당 자료를 활용하고자 할 때 신속하게 제공하여 선행조사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음

* ODA 사업 산출물을 주택, 교통, 물류, 건설, 신도시, 물 산업 등 분야별로 취합 및 관리하고 민간이 해당 데이터를 검색하여 활용 가능한 DB를 뜻함

- 해외건설 관련 국정과제 도출 시 한국교통연구원과 협업하여 진행하여 교통연 측 노하우를 이용하고, 단기적으로는 DB 중 일부 공동 관리 등의 방법으로 협업 고려

○ 한국수출입은행 송오순 부장

- 최근 국내 주택경기 하강국면 전환 등에 따라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나, 여전히 기업은 수익 중심 선별 수주전략을 펴고 있어 아직은 금융지원이 한정적인 구조임

- 하지만, 사우디 진출 등 수익성을 동반한 업체 측의 해외 진출이 증가될 전망에 따라 금융지원 역시 확대할 계획이며, 고부가영역(PMC, FEED, M&A 등)의 지원 역시 점진적으로 늘릴 예정임
- 낮은 금리 수준 유지, 복합금융 방식(EDCF, EDPF, ECA 연계) 지원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
- 중점지원지역은 중동(사우디), 호주 등 국가이며 해당 국가에 지원 집중 예정

○ 주요 건의사항 및 답변

- EDCF F/S 사업 입찰 시 가격 하한선을 60>80%로 늘려 업체 적정 대가 지급 요청 (수성엔지니어링 정운수 부사장 및 이상기 대표)
→ (과장님) 해당 자료 공유 시 기재부 회의 등 고위급 회의에 어필하겠음
- 진행 사업 중 네팔 도로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재정으로 진행되다 보니 현재 기성액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(수성엔지니어링 정운수 부사장)
→ (과장님) 관련 자료 제공 시, 대사관을 통하거나 장관님 서한을 송부하여 지원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음
- 직접비 및 간접비 등 해외건설기업의 M&A 지원을 하여 수주지원 중심이 아닌 수익성 제고 목적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(충북대학교 박형근 교수)
→ (과장님) 동종업계 분야의 선진기업 M&A 사례거나 기술이전 등 기대효과가 확실한 경우 지원을 고려해 보겠음
- 국토교통 ODA 등 해외건설 관련 국정과제 도출 시 한국교통연구원과 협업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(한국교통연구원 이훈기 센터장)
→ (과장님) 국토교통 ODA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확대되기 전까지는 정책지원이나 다른 부분 등의 의견을 주시면 협력 논의 진행하겠음

○ 해외건설정책과장

- 현재 해외건설이 각종 대통령 주재 회의 등 다수의 고위급 회의에서 감초처럼 언급될 정도로 해외건설에 대한 국가적인 기대가 고조되고 있음
- 이런 상황 속에서 개최된 동 정책자문위원회는 해외건설 관련 각 분야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도출시키겠음
- 현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(8.31)에 발표된 '해외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'에 따라 지역별로 진출전략을 수립 중에 있는데, 공동연구의 발표를 통해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었음
- 신시장(아세안, 아프리카) 등 지역별 세부 진출전략 도출을 위한 추가 문의를 드리겠으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해외건설 진출 지원전략을 좀 더 고민해보겠음

□ 정책자문위원회 사진



□ 향후 계획

- 발표 자료 공유 및 해외건설 지속 가능 진출체계 및 방향에 대한 추가 동향자료 조사

- 정책지원센터 -

붙임 : 주요 참석자 명단. 끝.

NO	기관명	성명	분야/소속
1	국토교통부	안진애 과장	해외건설정책과
2		이혜인 사무관	해외건설정책과
3	해외건설협회	김영태 부회장	정책본부
4		정창구 센터장	정책지원센터
5	기업	차문호 자문역	현대건설 (글로벌마케팅사업부)
6		이상기 대표	다인맨파워 (전 GS건설)
7		김재현 이사	한미글로벌 (글로벌사업실)
8		정운수 부사장	수성엔지니어링 (해외영업본부)
9	연구기관	박형근 교수	충북대학교 (토목공학부)
10		장현승 교수	서울과학기술대학교 (건축공학과)
11		손태홍 연구위원	한국건설산업연구원 (기술경영연구실)
12		이훈기 센터장	한국교통연구원 (국제인프라협력연구센터)
13	유관기관	송오순 부장	한국수출입은행 (해외사업총괄부)